

이 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I. 일반개황

면 적	1,648천 km ²	G D P	4,100억 달러 (2015)
인 구	78.6백만 명 (2015)	1 인 당 GDP	5,215 달러 (2015)
정 치 체 제	이슬람 공화정	통 화 단 위	Irani Rial (IR)
대 외 정 책	친러시아, 친중국	환 율(달러당)	29,184.40 (2015)

- 서남아시아 걸프 연안에 위치한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7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및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중동의 경제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었으며, 기술이전 및 자본 투자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 2015. 7. 14자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최종 합의문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확정되고 2016. 1. 16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사항이행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4년 만에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상당부분 해제되어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졌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성장 회복세 본격화 전망

- 이란 경제는 핵개발 관련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로 2012~1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 11. 24자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4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2016년 경제성장률은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과 투자유치 재개 등에 힘입어 4%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전망

- 재정수지는 경제제재로 인한 원유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2%대의 적자가 전망됨.
- 2015/16년 예산안은 유가를 배럴당 72달러로 가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가는 평균 30달러를 하회하고 있어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함.
- 이란 정부는 보조금 개혁 가속화, 세수 확대, NDF(국가개발기금)* 적립금 활용, 환율 절하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 설립된 62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로, 이란 정부는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30% 이상을 동 펀드에 이전하고 있음.

□ 리알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두 자릿수 지속

- 경제제재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확대 재정정책, 리알화 약세 용인 등 완화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오고 있음.

- 일일 정유능력을 2007년 177만 배럴에서 2015년 200만 배럴까지 확대하는 등 휘발유 공급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급증 기대

- 이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금번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특히 석유-천연가스 개발, 인프라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이란은 2014년 기준 1,578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세계 4위 규모)과 34조 m³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세계 1위 규모)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며, 아울러 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 인구 약 8천만 명의 소비시장,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 보유

- 중동의 인구대국인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재 수요의 증대가 전망되는 등 내수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이란은 특히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조만간 제재 이전 수준(연간 150만 대)을 회복할 전망이다.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은 경제제재 여파로 아직까지 부진

-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 핵개발을 둘러싼 경제제재 지속으로 성과는 부진하였음.

- 아울러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경제제재로 인해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제6차(2016-21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발표

- 동 계획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외국자본 유치, NDF 확충(석유수입의 30~38% 이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제재 해제가 실현됨에 따라 동 계획의 달성을 위한 기본 전제인 원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 등이 가능해져 계획 달성의 전망이 밝아짐.

3. 대외거래

□ 원유수출 감소 및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위축, 2016년에는 소폭 개선 기대

-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
-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상품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 기존 원유수출 수입(收入)을 바탕으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 유지

- 제재 이전의 원유수출 수입으로 형성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12.4개월분으로 양호한 수준임.
- 2015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 규모는 GDP의 2.5%로 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수준임. 아울러 D.S.R도 2.9% 수준으로 단기간 외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핵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대외지급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외 동결자산 유입 및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 재개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f
경 상 수 지	23,423	26,440	15,861	2,478	13,512
경 상 수 지 / G D P	4.0	5.2	3.7	0.6	3.0
상 품 수 지	28,559	31,969	21,392	9,076	20,472
수 출	97,271	93,124	86,471	79,105	100,305
수 입	68712	61155	65079	70,029	79,833
외 환 보 유 액	102,282	105,560	106,700	91,700	94,700
총 외 채 잔 액	7,402	7,646	7,035	10,252	12,94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3	1.5	1.7	2.5	3.2
D S R	3.9	2.4	2.2	2.9	2.8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상황

□ Rouhani 대통령, 경제제재 해제로 정치적 입지 강화 기대

- 2013년 취임한 온건파 Hassan Rouhani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의 핵협상 재개를 주도하여, 2016년 1월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냄.
- 경제제재 해제로 Rouhani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내부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보수파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주변국 내전, 테러 위협,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이 불안 요소

- 경제제재 여파로 10% 이상의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를 상회함. 또한 이라크 등 주변국들의 내전과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최고 종교지도자인 Ayatollah Khamenei는 각종 종교칙령을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명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경제제재 해제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기대

-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 재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란 내 강경 보수파가 서방(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관계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관계 악화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고 있음.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시아파)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에 반발한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상환여력은 충분하나,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그간 외채상환 불가

- 상환여력이 충분하며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금번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외채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이란에 대하여 7등급 유지

- OECD는 2007년 6월 석유 부문의 투자 부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 전망 등을 근거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 한 바 있으며, 2012년 1월 경제제재 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7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 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음.
- S&P, Moody's, Fitch는 이란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62. 10. 23 (북한과는 1973. 4. 19 수교)

□ 주요 협정 :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76), 수산협력관련협정(1978), 항공협정(1998), 투자보장협정(1998), 무역협정(2006)

□ 이란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이나, 교역규모는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

- 우리나라의 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 표 3 > 한·이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주요 품목
수 출	4,480,902	4,162,243	3,759,073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수 입	5,564,403	4,578,119	2,361,590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5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 25건, 54,095천 달러

- 대 이란 직접투자도 2012년 이후 감소하여, 2014년 이후 투자실적 없음.

□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양국간 경제관계도 호전될 전망

-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석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을 기반으로 석유-가스전 및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바, 국내 건설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시 수혜가 기대됨.
- 1975년 첫 진출 후 우리나라가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기업들은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 또한 제재 해제 후 구매력 상승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V. 종합의견

- 이란은 2014년 이후 제재 완화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로 전환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가 개시됨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어 2016년에는 4%대 중반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제재 해제로 Rouhani 대통령이 이끄는 온건파 정부의 지지기반이 보다 확고해졌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변국들의 내전 및 테러 위협,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은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잠재됨.
- OECD는 2015년 1월 CRE 회의 결과 이란의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이는 대 이란 경제제재에 기인한 것임. 특히 이란은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금융제재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경제제재 해제로 채무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